

## 2. 동시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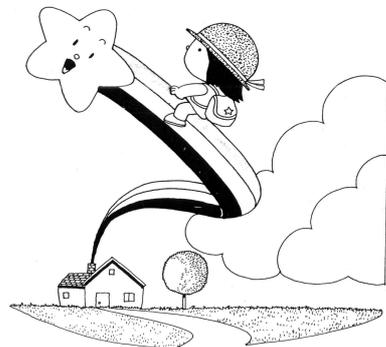


소나기 손 스쳐 간  
우리 집 꽃밭.

활기가 솟는다,  
기운이 솟는다,  
빗방울  
또르르 굴러간 잎사귀마다.

무지개꽃 피어난다,  
내 가슴속에는.  
빗방울  
통통 치는 음표를 타고,

게으른 내 마음도  
활기가 솟는다,  
기운이 솟는다,  
슬슬 피어나는  
싱그러운 꽃내음 타고.



## 고무줄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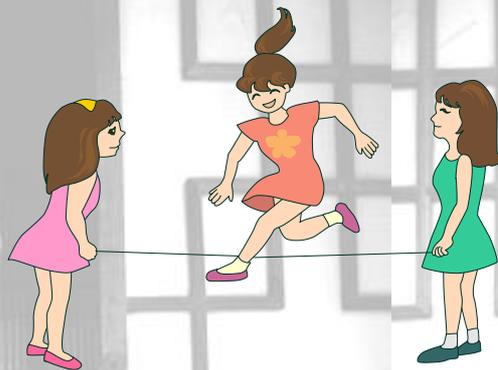
앞으로 요리조리 홑짝쿵  
랄랄라 빙빙 돌아라.

또 뒤로 요리조리 홑짝쿵  
고무줄 놀이 하자.

어쩌다 토라진 순이  
아니아니 하다가도,

앞으로 홑짝쿵, 뒤로 홑짝쿵  
너도나도 요리조리 홑짝쿵.

덩달아 강아지도 홑짝쿵  
해맑은 웃음꽃 핀다.  
그 만큼 더 정다운  
우리는 하나.



## 1. 시의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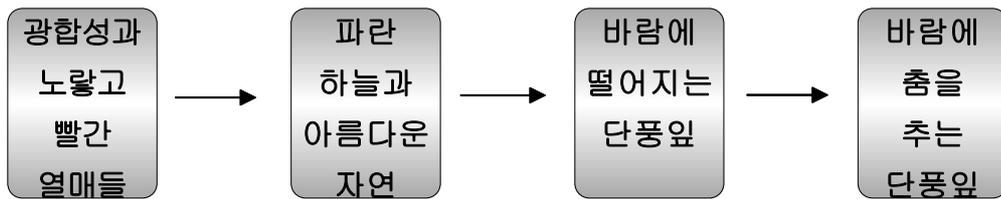
(1) 무엇에 비유(빛대어 표현)할 것인가?



(2) 어떤 내용을 비유(빛대어 표현)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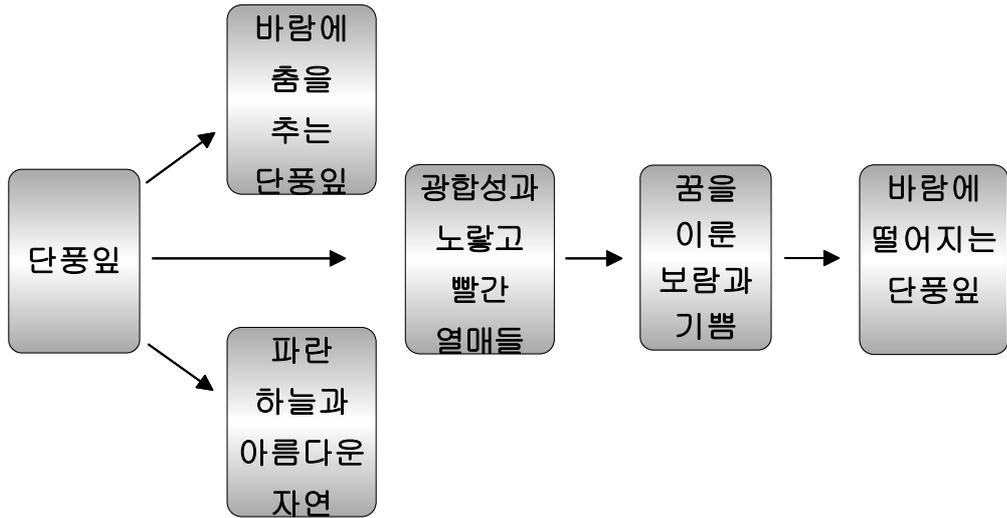
(3) 문장을 구성할 근거 재료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4)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 다목적 글소리 샘 ☐

---



(5) 주제는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아름다운 꿈을 갖고  
보람되게 살고 싶다.



꿈꾸는 단풍잎



## 꿈꾸는 단풍잎

바람에 춤을  
추는 단풍잎

살랑살랑  
가을 바람 타고  
춤을 추는가 했더니,

잎의 광합성  
과 노랗고  
빨간 열매들

나뭇가지마다  
햇살 모아  
빨강고 노란 등불을  
주렁주렁 밝혀 놓고,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

파란 하늘 도화지에  
곱고 예쁜 가을을  
알록달록 색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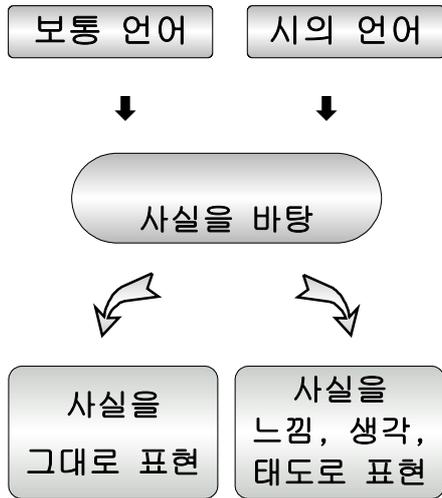
아름다운 결  
실, 꿈을 이룬  
보람과 기쁨

활짝 핀 웃음을 날리며  
살랑살랑 내려 앉는다.

아름다운  
꿈을 갖고  
싶다.

나도  
가슴속에 그려 봅니다,  
곱고 예쁜 그런 가을을.

## 2. 보통 언어와 시의 언어의 차이점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가  
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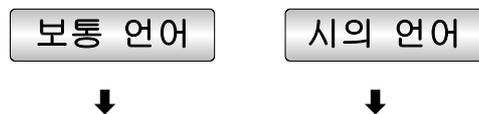
(예)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어.”

연습①)

깜짝 놀랐다. ➡ ( )

## 3. 보통 언어와 시의 언어 조직



말을 그대로  
직접 표현

말을 함축  
간접 표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것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것

(예)

비바람이 푸른  
들녘을 휩쓸고  
지나갔다.

(예)

비바람 놀다 간  
초록 바다 들녘  
에

연습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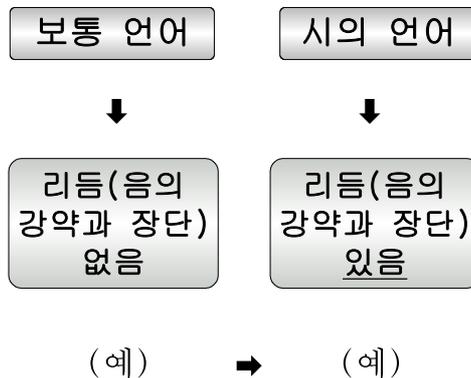
땅뺨기 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니  
과랑게 보였다.

\_\_\_\_\_

\_\_\_\_\_

\_\_\_\_\_

## 4. 보통 언어와 시의 언어의 리듬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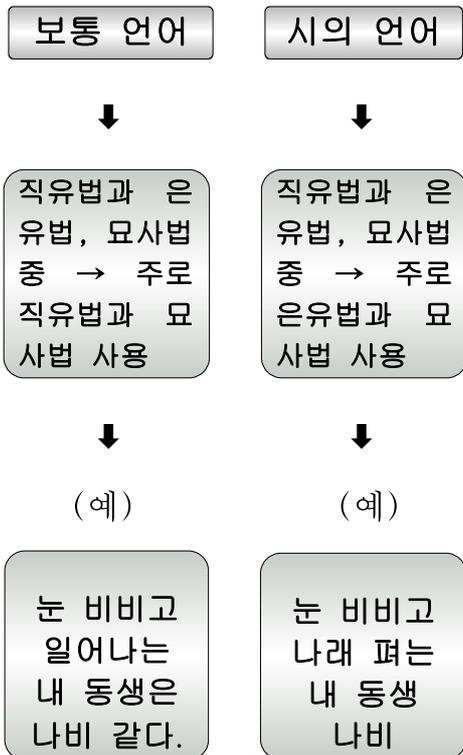
비바람이 푸른 비바람 놀다 간  
 들녘을 휩쓸고 초록 바다 들녘  
 지나갔다. 에

↓음표를 붙이면?↓

노래가 어려움      노래가 됨

### 5. 산문 언어와 시의 언어와의 이미지 관계

※ 이미지란 마음의 텔레비전



※ 일어나는 → 나래 펴는(묘사)  
 ※ 내 동생은 나비 같다.(직유) → 내 동생 나비(은유)

### 6. 동시는 설명문이 아니다.

① 설명 → 순이의 눈이 반짝거린다. (무엇이 어찌한다.)  
 → 이것은 공책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② 동시 → 순이의 눈은 셋별 (은유)  
 셋별 같은 순이의 눈(직유)

### 7. 동시의 연 만들기

연이란 → 산문이나 보통글에서 형식 문단과 같은 것(한 생각의 단위)

①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쳐다본 은행나무의 노란 은행잎의 모습은 마치 등불 같아 보였습니다.

② 길가에 가로등처럼 햇빛에 반짝이는 은행잎 한 잎 한 잎



서 리듬감이 생겨납니다.

## 8. 동시의 행 만들기

행이란→ 산문이나 보통글에서 **줄과 같은 것 (박자와 리듬이 있습니다.)**

### (1) 박자

지나가던 소낙비가 V(한 박) J  
 놓고 간 다리, V(두 박) J J (J)

아롱다롱 일곱 색이 V(한 박) J  
 곱기도 하다. V(두 박) J J (J)

위와 같이 **한 연의 첫 행, 둘째 행, 셋째 행, ……은 한 박이고, 연의 마지막 끝 행은 두 박입니다.**

### (2) 리듬

지나가던 소낙비가 (8자)  
 놓고 간 다리, (5자)

아롱다롱 일곱 색이(8자)  
 곱기도 하다. (5자)

위와 같이 8.5조가 반복되면

### (3) 리듬

야아① 선생님② 찬③ 공이④  
 쏘옥⑤ 들어간다.⑥

번호 붙인 낱말 ①~⑥ 중에서 **한 박을** 넣어야 할 곳을 찾으시오. (눈으로 보는 느낌이 아니라 읽어 보고, 듣는 느낌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한 행으로 합니다.) 답 ①과④

야아  
 선생님 찬 공이  
 쏘옥 들어간다.

**연습④)** 다음 글을 잘 읽고 몇 번에 한 박을 넣어야 듣는 느낌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그리고 행을 만들어 보시오.

아이들도① 선생님도② 뛰어  
 들어가는③ 푸른 하늘.④

---



---

---

---

---

(4) 도치법을 **보기** 행 만들기

☞ 방법

- ① 글의 순서를 바꾼다.(도치)
- ② 말을 바꾸어 보자.
- ③ 말을 더 넣어 보자.

◎ 어젯밤엔 나비가 되어 꽃숲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 어젯밤엔 꿈을 꾸었다, 나비가 되어 꽃숲을 날아다니는 예쁜 꿈을.

연습⑤) 다음 글을 위의 보기와 같이 행을 만들어 보시오.

모래 위에 우리 나라 지도를 그린다.

→

---

---

☞ 동시의 특징

- ① 많은 내용을 짧은 글로 담았다.
- ② 리듬감이 있다.
- ③ 두 배정도 느리게 읽어야 맛이 난다.
- ④ 묘사, 전체적 비유가 더 좋다.

### 골목길

분홍빛 노을이  
넓은 하늘을 뒤덮고,  
빠알간 해님이  
서산으로 숨바꼭질할 때.

“하나야, 밥 먹어라.”  
“두나야, 밥 먹어라.”  
“그만 놀고 들어와야지.”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

‘더 놀고 싶은데…….’  
나의 친구 골목길

### 카메라

카메라는  
내 마음도 찍어주고,

꿈틀거리는 지렁이  
할머니 이마에 박혔네.

카메라는  
우리 세상도 찍어준다.

난,  
너무나 징그러운데,  
할머닌,  
징그럽지도 않나 봐.  
가엾은 우리 할머니!

참 신기하구나!  
카메라는.

### 국화꽃

### 시 계

국화야, 국화야!  
넌,  
언제 화장했니?

똑딱똑딱  
시계가 달리기를 해요.

국화야, 국화야!  
넌,  
거울도 없는데,  
어떻게 화장을 하니?

초침은  
맨 날 일 등  
간 바늘은 언제나 이등  
작은 바늘은  
삼 등을 하고요.



### 할머니 주름살

시계는  
달리기 경주를 해요.

지렁이 같은  
할머니 주름살.

### 손

깨끗하게 청소할 땐

아주 예쁜 손.

친구와 싸울 때엔  
정말 미운 손.

언제나  
요술쟁이처럼 변하는  
작고 귀여운 나의 손.

### 낙엽

울긋불긋  
낙엽이 바람에 날려  
팔랑팔랑 떨어지네.

나, 모르게  
간다는 소식 없이  
가 버리는 낙엽.

살금살금  
유령 같은  
나의 친구 낙엽.

### 공

때굴때굴



굴러가는 공.

세계 차니  
얼마나 아플꼬?

언제나  
내 마음 속에  
떼구르르 굴러가는 공.

### 걸음

집에서 나와  
한 걸음 걸으면 신호등.

신호등에서  
두 걸음 걸으면 문방구.

문방구에서  
세 걸음 걸으면 학교.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쿵쿵쿵 내 걸음아!

### 엄마 손

엄마 손,  
아주 예쁜 손.

엄마 손에서 풍기는  
향수 같은 냄새.

엄마 손 잡고 같이 자면  
따뜻한 난로.

### 깃 발

하늘에 펄럭이는  
하얀 손수건.

왜,  
깃발은 멀리서 보면  
손수건 같이 보이는 걸까?

운동회 때 지켜 봐 주는  
하얀 손수건.

### 신 문

우리 소문을

알려주는 신문.

대통령이  
별을 받았다는 것도  
나오는 신문.

신문은 참말쟁이.  
신문은 소문쟁이.

### 단풍잎

빨간 단풍잎  
예쁜 단풍잎

가을이면 빨강고,  
여름이면 초록색.



들이  
빨강게 단풍 들었네.

참 신기하다!  
그런 요술이 어디 있지?

### 겨울바람

낮선 손님이 왔어요.  
추운 손님이 왔어요.

감기 들지 말라고  
엄마 손은 바빠요.

두꺼운 옷들이  
장롱 속에서 나왔어요.

### 겨울나무

떨고 서 있는  
겨울나무

우리들처럼  
옷도 입지 않고  
얼마나 추울까?

빨리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와  
예쁜 꽃이 피었으면.....



전 화

따르릉 따르릉  
시끄럽게 울고 있는 전화기.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재밌는 소식  
빨리빨리 전하다  
힘들다고 우는 전화기.

### 코스모스

예쁘고  
아름다운 코스모스.

난,  
코스모스를 볼 때마다  
울긋불긋 부럽지.

그럴 땐  
분홍, 하얀, 연분홍  
여러 가지 색으로  
마음속에 수를 놓지요.

겨 울

휘잉휘잉 바람이 불면,  
에취에취  
아이들의 기침소리.

가을이는 언제 왔는지  
겨울이가 인사하고,

우리들의  
볼에는  
붉으스레  
물이 든다.



선생님

호랑이처럼 무서운  
우리 선생님.

우린  
호랑이 앞에선  
벌벌 떴다네.

때로는  
코미디 같은  
우리 선생님.

우리들은 깔깔깔

배꼽에서 웃음이 나와요.

## 발자국 소리

감기 나으라고  
병원 갔다 오는 길.

주사 맞고  
아픈 엉덩이에  
걸음은 터벅터벅.  
구경하느라  
신이 난 엄마는  
발자국 소리 또각또각.

## 계란

“계란사~”  
소리나면 쫓르르 달려와

엄마 치마 잡고  
조르는 꼬마.

꼬마의 짜증에 못 이겨  
계란 사는 어머니.

## 가을 하늘

사랑방 아저씨 세 개  
우리 딸 한 개  
나는 10개 호호호.

호수는  
가을 하늘 같아요.

엄마 무릎에  
우는 꼬마.



물이 졸졸졸  
온화하게 흐르고,

한 개라도 주는 것이 낫지  
어머니의 말씀.

## 꿈나라

마음을 뚫어주는  
가을 향기와  
높고 맑은 가을 하늘

## 교실 청소

우리 아기가  
예쁘게 잠을 잔다.

쓱쓱쓱  
걸레로 사물함 닦기.

우리 아기가  
예쁜 꿈을 꾸다.

쓱쓱쓱  
왁스걸레로 교실 닦기.

나도  
예쁜 꿈을 꾸었다,  
이사 간 미경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꿈을.

내가  
청소 로봇이 된 것처럼

청소를 하고 나니,  
내 마음도 깨끗

친구들의 마음도  
깨끗해졌겠지.

### 산

올라도 올라도  
오르기 힘든  
산

그러나  
올라가면 야~호!  
소리쳐 본다.

산은  
나의 꿈이 되고,

나무는  
나의 미래가 된다.



### 친구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요.

또 다시  
약속을 하고,

다시 만날 날만  
기억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친구.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우정…….

### 살 구

다섯 개의 살구 알로  
요리 잡고 저리 잡고,

틀리면 “피”  
살구 탕

종 치면 아쉬워

에이 다음 시간  
또 약속

끝 중 치면 우르르 몰려  
살구 하려면  
아까 했던  
점수 기억이 안나요.

다시 편을 짜다 보면,  
벌써 시계는  
종칠 시간

점심이 끝나면 우르르 몰려  
속닥거리며 살구를 해요.

선생님도 보시며  
미소 띄우시고

우리들도 그 바람에  
더욱 신바람 나네.

바풀, 콩, 찹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살구하고,

내가 틀리면  
아이고  
울부짖는 목소리

이 가을이 오면



울긋불긋  
알록달록  
어여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색깔.

무지개보다  
예쁘고 나보다  
예쁜  
색깔들.....  
누굴 닮아  
저리도 예뻐요!

정말 아름다운  
색깔들  
그 색깔에  
물들고 싶다.

추석을 기다리며

추석이 점점  
산으로 들로 다가온다.  
별초하러 다니고,

색동옷 입은  
추석의 송편 향기가  
물신 풍긴다.

추석 준비하느라  
분주한 우리 집.

별써  
추석이 아른거린다.

책 속의  
선생님



책 한 권 한 권에  
선생님이 들어 있죠.

이 책에는  
마음의 양식을

저 책에는  
지식을 쌓게 하는 선생님.

책 속에는  
박사보다도 더 훌륭한  
선생님이 들어 계시죠.

## 종소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

어머니의  
맑은 종소리에 깨어나  
새로운 아침을 연다.

신나고 재미있는  
세상을 활짝 연다.

## 새 싹

봄이야 봄!  
얼굴을 내밀고  
봄을 알리는 새싹

옆 친구도 깨울까?  
아이 심심해

비 맞고 쓱쓱  
햇빛 보며 쓱쓱  
꼭 내 동생 같아

초록 옷 입고  
봄인사 하러 가자.

개나리 아줌마,  
진달래 아줌마,  
안녕하세요?  
즐거워  
어쩔 줄 모르는 새싹.

처음 보는 바깥 세상  
부끄럽지 않니?  
불 빠알게 지는 새싹.

### 아가의 보조개

우리 아가의 보조개는  
귀엽고 귀여운  
볼우물이에요.

생긋 웃으면  
엄마의 따듯한 사랑도  
들어갈 만한

볼우물이 생겨요.

더 더욱 웃으면  
우리 가족 모두의 사랑도  
들어갈 만한  
볼우물이 생기겠지요.

### 운동회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청군과 백군에서 환호성

야~ 청군이 이긴다.  
야~ 백군이 이긴다.  
어린이들은

    찌꼬리 같은 목소리를  
    모아모아  
    큰 소리로 응원하고,

백군이 이겼다, 와아.  
청군이 졌다, 짹짹.

## 달 님



달님은 달님은  
밤을 지켜주는  
호롱불

야근하시는  
청소부 아저씨  
땀을 닦아 주세요.

달님은 달님은  
밤을 지켜 주시는  
용감한 경찰 아저씨  
나쁜 사람들은  
달님에게 혼이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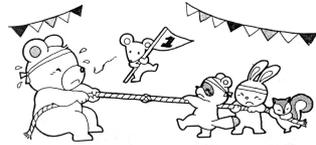
## 어머니

언제 잡아도  
따뜻한 어머니의 손.

눈을 감으면  
언제나 환히 웃고 계시는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사랑은  
크고도 넓은 사랑이어라.

## 감 기



이  
불 하  
고  
나

하곤  
적이에요

서로서로  
붙기 싫어  
떨어져요.

그러니  
감기가 나하구  
친구하재요.

## 가 방

꿈과 희망이  
들어 있어요,  
가방 속에는.

언제나  
꿈과 희망의 나라로  
안내하는  
좋은 친구들이  
숨어 있어요,  
가방 속에는.

책가방에  
숨어있는 책  
필통 안의  
꼬마 병정들이

아무도 모르게  
꿈과 희망의 나라로  
안내해 줘요,  
가방은.

## 축 구

점심 시간 땡  
점심은 헐레벌떡 먹고  
달려나간다,

운동장으로.

공을 힘차게 찬다,  
잘 차는 아이들은.

어쩌다 공이 오면  
또 빼앗겨 버리지.

우울한 기분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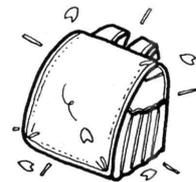
뛰고 싶다,  
다른 아이들처럼.

## 부모님 마음

아야아야 앙앙앙  
때리시는 엄마 마음  
생각도 해야지.

약속하고

돌아서면  
뒤죽박죽  
내 세상



하지만 엄마 마음  
찢어질 듯 아픈데.....

나도 이제  
엄마 마음 치료해서  
착한 딸 될 꺼야.

### 별들이.....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밤엔  
무엇을 할까?

공부를  
초롱초롱 하고,

하아하아  
힘이 들면  
하품도 하고,

밤에는  
할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정리하는 마음으로**

지난 일을  
되새겨 보면  
슬픈 일 많았지요.

하지만  
우린 잘 이겨냈잖아요.

정리하는 마음으로  
지난 일을 되새겨 봐요.

지난 일을  
되새겨 보면  
기쁜 일 많았잖아요.

산수 시험 잘 친 것  
부반장 된 것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험은  
더욱 잘 쳐야지.

### 시험 공부

짜증나는 시험  
시험하면  
떠오르는 것

잠들고 싶다.

누가 시험  
만들었을까?

시험 공부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못 있어요.

## 엄마 하늘

푸른 하늘은  
엄마의 따뜻한 가슴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가  
나를 부른다.

꽃과 단풍은  
엄마의 향기

곡식과 과일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저 높은 하늘에 올라  
엄마의 따뜻한 가슴에

## 가을은 왜?

가을은 심술쟁이  
저 혼자 붉게 물들기 싫어  
이 산 저 산  
나뭇잎들을  
모두 물들여 놓고 가니까.

가을은 말쑥쟁이  
청소부 아저씨  
힘드신 줄 모르고  
하나, 둘  
낙엽을 떨어뜨리고 가니까.

그래도 밋지 않은 건  
왜일까?

## 비

장난꾸러기 보슬비  
마구 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들 소풍날,  
아이들 운동회 날  
보슬보슬 웃으며  
살며시 내려 앉지요.

말썰꾸러기 이슬비  
아무 데나 오지 않아요.

구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멋쟁이 해님이  
너무 눈부신 날,  
아이들 새로 산 옷  
입고 가는 날,  
이슬이슬 노래하며  
내려 앉지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배도 고프데…….

토요일 수업을 마치니  
보슬비가 내린다.

교문 앞에  
친구들의 엄마 얼굴이  
마글마글하다,  
대장군처럼.

우리 엄마 얼굴은  
집에 있나?

평소에  
너무 잘 해줘  
엄마의 따스한 정을  
몰랐는데…….  
오늘은 웬지  
기다려진다.

한 시간…….  
두 시간…….

울 엄마 얼굴이  
저만치에서 뛰어오고 있다,  
우산을 들고…….

우 산

별이 되어

## 어버이날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밤 새도록 세어도  
모두 셀 수 없어  
뜬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있나요?

사람은 죽어서  
별이 된다고들 하지요.

나는 동쪽 하늘  
저 멀리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고 싶어요.

어두운 밤  
나그네의 길을  
밝혀주는 밝은 별.....



서울에서  
부산에 갈 사람  
서울에서  
목포에 갈 사람이 있다.

서울에서  
부산에 갈 사람이  
서울에서  
목포에 갈 사람이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은  
그 목표를 향해  
걸고 있다,  
아니 뛰고 있다,  
푸른 꿈 한 장 들고서.

행여  
부산에 갈 기차가  
고장나지 않을까?  
행여  
목포에 가는 기차가  
사고는 나지 않을까?



근심 걱정 가슴에 달고,  
밤낮 뛰는 분들  
차량 정비원,  
철길 건널목 간수,  
때론 목숨을 구하고  
죽어간 분도 있다.

우리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걸고 뛰는 데,  
불편함은 없을까?  
탈선을 하지 않을까?

근심 걱정 가슴에 달고,  
밤낮 뛰는 분들  
우리들의 아버지.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

그 분들의 보은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일까?  
두고두고  
생각해 보아도 모자라리,  
일년 삼백 육십 오일을.